

한국의 아름다운 등대16경



Artists

한국의 아름다운 등대16경

발간사	03
1. 영도 등대	04
2. 오륙도 등대	06
3. 마라도 등대	08
4. 우도 등대	10
5. 소청도 등대	12
6. 팔미도 등대	14
7. 오동도 등대	16
8. 소매물도 등대	18
9. 속초 등대	20
10. 어청도 등대	22
11. 흥도 등대	24
12. 옹도 등대	26
13. 울기 등대	28
14. 간절곶 등대	30
15. 독도 등대	32
16. 호미곶 등대	34

발간사

칠혹같은 어둠 속에서 뱃길을 안내해 주는 한줄기 불빛!
거친 바다, 긴 항해의 여정 속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등대는
항해자에게 안도감, 반기움을 주는 안식처의 영원한 불빛입니다.

우리 해양수산부에서는 전국의 등대를 자연친화적인 해양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여 국민 여러분들이 등대를 배경으로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모든 이들이 "꼭 가보고 싶은 곳,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등대 16경"을 선정하여 소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에는 100여 년 동안 간직해온 등대의 역사와 특유의
건축양식, 잘 조화된 절경과 등대 고유의 서정적 이미지를 담고
있는 곳을 주변 관광지와 교통편에 대한 정보를 함께 수록하였
습니다.

이제 낭만이 깃든 "한국의 아름다운 등대 16경"을 찾아 떠나
보십시오!

한편의 시상이 떠오를 수 있게 하는 이곳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영도등대

영도등대는 처음 목장이라는 뜻의 목도(牧島)등대로 불리었으나 당시 그곳에서 기르던 말이 비호와 같이 빨라 그림자가 끊어질 정도라 하여 절영도(絶影島)등대라 불리었다. 이후 1974년 행정 편의상 '절' 자를 빼고 영도등대로 개명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신설점등 1906.12.1.
소재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망로 181
구조 백원형 콘크리트 34m(평균해면상 87m)
등질 백색광 18초 3섬광(F(3) W 18s)
광달거리 24해리(약 45km)
인터넷 www.portbusan.go.kr(부산지방해양수산청)
연락처 051-405-1201



가족과 연인이 함께 체험하는 해양문화공간

●○ 부산시 영도구 태종대에 위치한 영도등대는 1906년 12월에 설치되어 지난 100여년 동안 부산항의 길목에서 영롱한 불빛을 밝혀왔으나 시설 노후로 2004년에 새로운 등대 시설물로 교체되어 부산지역의 해양관광 명소로 거듭났다. 새로 건립된 영도등대는 등대시설, 예술작품 전시실 그리고 자연사 박물관 등 3개동(연면적 72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대시설은 기존 등대와 같이 백색의 원형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높이는 34m이며 불빛은 45km까지 나아간다. 전시실(see & sea)은 시민들과 방문객을 위해 미술작품을 소개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자연사 박물관은 등대 바로 옆 신선바위 등에서 발견된 공룡발자국과 백악기 공룡서식지로 추측되는 이곳을 기념하는 공룡화석 등을 전시하고 있다. 영도등대에 오시면 등대와 바다, 천혜의 절경 그리고 덩으로 해양갤러리에서 미술작품도 감상할 수 있어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친숙한 해양문화공간으로써 역할을 할 것이며 영도등대는 새천년의 빛을 밝히며 해양부국실현을 향한 힘찬 도약의 선봉장이 될 것이다.



찾아오시는 길

시내버스 (부산역:88번,101번)

부산역→태종대공원(약35분)→영도등대
(다누비열차 약20분, 도보 약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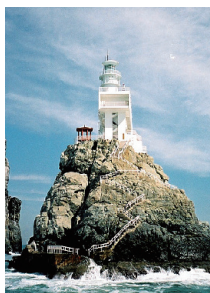
유람선

감지해변→등대(약25분)



오륙도등대

부산의 관문인 오륙도 앞으로 배들이 드나들기 시작하자 항구를 오가는 선박들의 길잡이가 필요해 등대가 세워졌다.



신설점등 1937.11.1.
소재지 부산광역시 남구 오륙도로 130
구조 백원형 콘크리트 27.5m(평균해면상 53m)
등질 백색광 10초 1섬광(FW 10s)
광달거리 22해리(약 39km)
인터넷 www.portbusan.go.kr(부산지방해양수산청)
연락처 051-609-6804



부산항을 지키는 수호신! 오륙도등대....

●○ 오륙도는 밀물과 썰물에 따라 5개 또는 6개 섬으로 보여 오륙도라는 이름이 유래됐다. 오륙도 발섬에 등대가 개설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1937년 11월이다. 1876년 부산항이 개항되고 나서 부산의 관문인 오륙도 앞으로 배들이 드나들기 시작하자 항구를 오가는 선박들의 길잡이가 필요해 등대가 세워졌다. 이 등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국제 항구인 부산항을 드나드는 각종 선박이 반드시 지나야 하기 때문에 오륙도와 더불어 부산항의 상징으로 통한다. 오륙도 등대는 당초 6.2m 높이로 건립됐다. 그러나 등대가 너무 낮아 보수가 필요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1998년 12월 웅장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며, 등탑 높이를 27.5m로 높이고 등대 내부에는 우리나라 주요 등대를 살펴볼 수 있는 사진 전시실을 갖쳤으며, 부산항을 한눈에 굽어볼 수 있는 전망대가 설치되어있다. 여기에 올라서면 활기찬 부산항의 역동적인모습과 아름다운 야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찾아오시는 길

시내버스 (부산역:27번)

부산역→오륙도SK뷰 후문(약40분)
→오륙도관광유람선→성조호(10~15분)
→등대선착장



마라도등대

푸른 잔디밭 끝에 걸쳐 바다를 향하고 있는 마라도 등대는 동중국해와 제주도 남부해역을 오가는 선박들이 육지초인표지로 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희망봉'등대이다.



신설점등 1915.3.1
소재지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165
구조 백팔각형콘크리트조 16m(평균해면상 51m)
등질 섬백광 10초 1섬광(FW 10s)
광달거리 26해리(약 48km)
인터넷 <http://jeju.mof.go.kr>(제주해양수산관리단)
연락처 064-792-8507



바다를 향한 그리움에 별조차 눈길이 머무는 곳!

●○ 우리나라 국토최남단 마라도는 산이수동에서 뱃길로 30여분을 가면 만날 수 있다. 태풍이라도 불면 파도에 휩쓸려 버릴 것 같은 나즈막한 섬! 마라도는 여행객에게는 국토최남단이라는 매력을, 낚시인들에게는 우리나라 뱃어둠 낚시의 최고 포인트로써 사랑받고 있는 섬이다. 푸른 잔디밭 끝에 걸쳐 바다를 향하고 있는 마라도 등대는 동중국해와 제주도 남부해역을 오가는 선박들이 육지초인표지로 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희망봉'등대이다.

일제 강점기인 1915년 3월 최초 건립된 마라도 등대는 1987년 3월 새로 개축하였고 하얀색의 8각형 콘크리트 구조로 높이는 16m, 감빡이는 주기는 10초에 한번씩 반짝이고, 약 48km 거리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마라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다. 마라도 관광은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임대해서 한 바퀴를 도는데 한 시간이면 충분하다. 총 학생수가 1명인 가파초등학교 마라분교와 국토 '최남단비', 슬픈 전설이 서려있는 '애기업개당', '장군 바위' 등이 있고 모 CF에서 '자장면 시키신 분'에 힘입어 생겨난 해물자장면집, 그리고 초콜릿 박물관 등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혹한다.



찾아오시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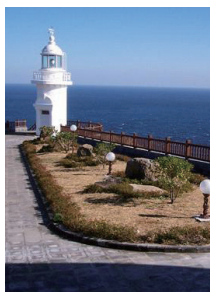
대중교통

- ▶ 제주국제공항(제주항 여객터미널)
 - 제주 시외버스터미널(30분)
 - 산이수동 유람선선착장 또는 모슬포항
 - 마라도(약35분) → 마라도등대(도보10분)



우도등대

제주 성산포항에서 북동쪽으로 약 3.8km 지점에 위치한 우도는 제주도 연안에 산재하는 부속도서 중 가장 큰 섬이다.



신설점등 1906.3.1
소재지 제주도 제주시 우도면 우도봉길 105
구조 원형콘크리트조 16m(평균해면상 140m)
등질 섬백광 20초 1섬광(FW 20s)
광달거리 27해리(약 50km)
인터넷 <http://jeju.mof.go.kr>(제주해양수산관리단)
연락처 064-783-0180



우도의 풍경과 함께 등대 테마파크가 있는 곳...

●○ 우도란 명칭은 조선조 숙종 23년(1697년)에 우도에 목장이 설치되고 부터다. 그것은 이형성(李衡祥)의 《南宦博物》(誌島)條에 卯方(동쪽)에는 牛島가 있는데, 모양은 臥牛(누운소)와 같고 旌義(정의)경계의 別防(별방) · 水山 兩鎮 사이에 있으며, 수목은 없고 오직 닳나무가 나는데, 肅宗(肅宗) 乙丑年에 목장을 신설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제주 성산포항에서 북동쪽으로 약 3.8Km 지점에 위치한 우도는 제주도 연안에 산재하는 부속도서 중 가장 큰 섬이다. 섬의 형태가 소가 드러누워 머리를 내민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여 우도(牛島)라 불리는 이곳에 1906년 3월 제주에서는 최초로 등대가 신설 점등되어 100여년간 운영하다 지난 2003년 12월 높이 16m 원형콘크리트조의 새로운 등탑 신축과 더불어 우리나라 최초로 등대를 테마로 한 등대공원을 조성하여 해양관광 상품으로 개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 곳에는 홍보·전시실 및 항로표지 3D 체험관과 세계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파로스등대 등 우리나라 및 세계의 유명한 등대 모형 17점을 전시하여 관광객의 눈과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고 있다.



찾아오시는 길

대중교통

- ▶ 제주국제공항(제주항 여객터미널)
→ 제주 시외버스터미널(30분)
- ▶ 성산포항 여객터미널→우도선착장(20분)
→우도등대(15분 버스투어, 자전거,
ATV오토바이 이용가능)



소청도등대

원래 '푸른섬'이라는 것을 그 음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한자로 쓰게 된 것이 포을도(包乙島)이고, 그 뜻에 따라 한자로 청도(靑島)라 표기되었으며, 중국을 오가는 배사람들에 의해 항해중의 표적인 '푸른섬(포을도)'으로 불려지다가 오늘날 소청도(小靑島)가 되었다.



- 신설점등 1908.1.1
소재지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811번지
(소청서로 279)
구조 원형콘크리트조 18m(평균해면상 83m)
등질 백색광 40초 4섬광(F)(4)W 40s
광달거리 19해리(약 35km)
인터넷 <http://www.portincheon.go.kr>(인천지방해양수산청)
연락처 032-836-3104



푸른 바닷물이 넘실대는 서해 최북단 등대

●○ 멀리서 섬을 바라볼 때 울창한 산림이 검푸르고 이 검푸른 색깔이 마치 눈썹 먹 색깔과 같다 하여 이를 푸른섬(검 푸른섬)이라 하여 청도(靑島)라 불렀다한다. 소청도와 대청도의 지명이 고려 인종 원년의 기록에 있으며, 원래 "푸른섬"이라는 것을 그 음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한자로 쓰게 된 것이 포을도(包乙島)이고, 그 뜻에 따라 한자로 청도(靑島)라 표기되었으며, 중국을 오가는 배사람들에 의해 항해중의 표적인 "푸른섬(포을도)"으로 불려지다가 오늘날 소청도(小靑島)가 되었다.

소청도 등대는 1908년 초점등하여 섬의 서단 83m 산 정상에 자리 잡고 있어 청청바다를 내려다보는 재미와 갯바위 낚시를 즐기는 이들의 발길이 멈추진 않는 곳으로 갯 잡아 올린 해산물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이국적인 푸른 바다 낭만의 섬 소청도 등대에서 멋진 추억을 간직하세요.



찾아오시는 길

대중교통(12, 24버스)

- ▶ 동인천역→연안부두
(연안여객터미널 약30분)

여객선

- ▶ 연안부두→소청도 ※ 1일 2회 쾌속선 3시간 30분소요
- ▶ 소청도선착장→등대(약10분) (약10분 등대차량이용)
- ▶ 예약문의 1644-4410/1577-2891



팔미도등대

팔미도 등대는 1903년 6월에 우리나라 최초로 점등되어 인천항의 길잡이 역할을 하다가 6.25 때는 인천상륙작전을 가능하게 한 역사적인 등대이기도 하다.



신설점등 1903.6.1
소재지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373번지(팔미로)
구조 원형콘크리트조 26m(평균해면상 85m)
등질 백색광 10초 1섬광(FW 10s)
광달거리 27해리(약 50km)
인터넷 <http://www.portincheon.go.kr>(인천지방해양수산청)
연락처 032-831-4925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 뜻 깊은 역사가 서린 등대

●○ 두 개의 섬이 마치 여덟 팔(八)자처럼 양쪽으로 뻗어 내린 꼬리와 같이 팔미도(八尾島)라 불려졌다고 한다. 김정호의 "청구도"에는 "팔미(八未)"로, "대동여지도"에는 "팔산(八山)"등으로 불리어 왔고, 인천 사람들에게는 "팔미귀선(八尾歸船)", 즉 낙조에 팔미도를 돌아드는 범선(帆船)의 자취가 아름다워 인천팔경(仁川八景)의 하나로 꼽혔던 해상 경승지(景勝地)이다.

팔미도 등대는 1903년 6월에 우리나라 최초로 점등되어 인천항의 길잡이 역할을 하다가 6.25때는 인천상륙작전을 가능하게 한 역사적인 등대이기도 하다.

인천항을 출발하여 인천대교를 지나 남쪽으로 15.7Km, 해발 58m 작고 아름다운 등대섬 팔미도는 자연경관이 빼어나 역사와 문화, 관광 등 천혜의 비경으로 인천지역의 해상관광 자원이다.



찾아오시는 길

대중교통(12, 24번 버스)

▶ 동인천역—연안부두
(연안여객터미널 약30분)

선박(유람선)

▶ 연안부두—팔미도(50분 소요)
▶ 예약문의: 032)885-0001



오동도등대

오동도(梧桐島)는 멀리서 볼 때 마치 오동잎처럼 보이고, 오동나무가 뿔뿔이 들어서 있다 하여 오동도라 했다. 또한 신이대나무(시누대라고도 함)가 섬 전체에 자생하여 죽도라고도 부른다.



- 신설점등 1952.5.12
소재지 전라남도 여주시 오동도로 238-32
구조 8각형콘크리트조 27m(평균해면상 63m)
등질 섬백광 10초 1섬광(F W 10s)
광달거리 25마일(약 46km)
인터넷 <http://yeosu.momat.go.kr>(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연락처 061-662-3999



여수밤바다의 동백꽃 향이 묻어나는 등대

●○ 오동도[梧桐島]는 멀리서 볼 때 마치 오동잎처럼 보이고, 오동나무가 뽀뽀이 들어서 있다 하여 오동도라 했다. 또한 신이대나무(시누대라고도 함)가 섬 전체에 자생하여 죽도라고도 부른다.

오동도등대는 지난 1952년 5월 12일 처음 불을 밝힌 후 2002년에 높이 27m의 백색 8각형 콘크리트조로 개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관람객은 8층 높이의 나선형 계단을 통해 등대 내부를 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로 연결된 전망대에서는 여수, 남해, 하동 등 남해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등대 옆 사무실에 있는 홍보관에서는 등대와 바다에 대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오동도 섬 전체는 완만한 구릉성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구에 모형거북선과 판옥선, 세계박람회 여수유치를 위해 세워진 2012세계박람회 홍보관, 음악분수 등이 있고 남쪽 해안가 쪽으로는 소리바위, 병풍바위, 지붕바위, 꼬기리바위, 용굴 등 기암절벽이 절경을 이루고 있다.

오동도등대에 오르는 길은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무성한 동백나무가 터널을 이루고 있는데 11월경에 빨간 꽃망울을 터뜨려 겨우내 피어 3월경에 절정을 이룬다.



찾아오시는 길

▶ 여수엑스포역→오동도입구(버스5분,도보15분)

→오동도등대(도보5분)

▶ 여수시외버스터미널→휴계소정류장(버스10분)

→오동도입구(도보10분)→오동도등대(도보5분)



소매물도등대

소매물도등대는 1917년 최초 설치되어 48km 거리까지 빛을 비추며, 90년 동안 우리나라 남해안을 지나는 선박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신설점등 1917.8.5

소재지 경남 통영시 한산면 소매물도길 246

구조 원형콘크리트조 13m(평균해면상 91m)

등질 섬백광 13초 1섬광(FW 13s)

광달거리 26해리(약 48km)

인터넷 <http://masan.mof.go.kr>(마산지방해양수산청)

연락처 055-641-3943



동양의 나폴리 통영! 통영의 꽃 소매물도등대...

●○ 경남 통영시에 속한 가장 아름다운 섬인 매물도는 해금강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 개의 섬인 매물도, 소매물도, 등대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매물도란 이름은 말꼬리를 닮은 섬이라 하여 마미도에서 매미도, 매물도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한다.

소매물도라 하면 일반적으로 등대섬을 연상하게 되는데 아름다운 등대섬 정상에는 높이 13m의 하얀등대가 주변 절경과 조화를 이루며 우뚝 서 있다. 소매물도등대는 1917년 최초 설치되어 48km 거리까지 빛을 비추며, 90년 동안 우리나라 남해안을 지나는 선박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소매물도와 등대섬은 하루 두 번 썰물 때가 되면 바닷길(몽돌밭)이 열리는 모세의 기적이 연출되며, 이 때를 맞추면 걸어서 등대섬으로 오고갈 수 있다.

망태봉 정상에서 바라보는 등대섬, 새하얀 암벽과 갖가지 형상의 바위들, 눈이 시리도록 새파란 하늘과 바닷물, 멀리 보이는 아스라한 수평선, 들꽃이 흐드러지게 핀 초원과 우뚝 솟은 등대의 어울림, '서불과차(徐市過此)' 라는 글이 써 있다는 글씨아굴은 형용하기 어려운 감동을 주는데 부족함이 없다.



찾아오시는 길

여객선 및 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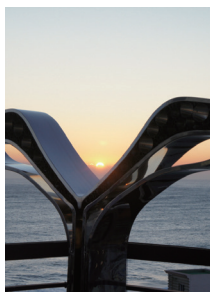
- ▶ 통영여객선터미널 또는 거제저구항→
소매물도항(약40분)
- ▶ 소매물도항→도보(약 30분)→소매물도등대



한국의 아름다운 등대16경

속초등대

속초항은 예부터 양양군의 길목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근해에 풍부한 수산자원이 부존하고 있어 어민의 이주가 점차 증가되면서 어항으로 형성되었다.



신설점등 1957.6.8
소재지 강원도 속초시 영금정로5길 8-28
구조 원형콘크리트조 28m(평균해면상 66m)
등질 섬백광 45초 4섬광(FI(4)W 45s)
광달거리 19해리(약 35km)
인터넷 <http://donghae.mof.go.kr>(동해지방해양수산청)
연락처 033-633-3406



동해의 관광명소, 속초제1경 "속초등대"

●○ 속초란 명칭에 대하여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조선 영조 36년 (1760년)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로 조선시대 양양도호부 소천면(所川面) 속초리(束草里)라는 한 동리였다. 이는 영금정(靈琴亭) 옆에 솔산이 있었는데 바다에서 이 포구를 들여다 보면 그 솔산이 소나무와 풀을 묶어서 세워놓은 것 같은 형태라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한 풍수지리적으로 속초(束草) 지형이 와우(臥牛)형으로 소가 누워서 풀을 먹고 있는 형국으로써, 소가 누워서만 풀을 뜯지 못하므로, 풀을 묶어서 소가 먹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지었다고도 한다. 속초항은 예부터 양양군의 길목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근해에 풍부한 수산자원이 부존하고 있어 어민의 이주가 점차 증가되면서 어항으로 형성되었다. 1905년 동해 연안항로가 개설되자 기항지로서 기선(汽船)이 입·출항하였으며, 일제강점기 말부터 본격적인 항만건설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1957년에 속초등대를 신설·운영해 오다가 지난 2006년 12월 높이 28m 원형콘크리트조의 새로운 등탑 신축과 더불어 등대전망대, 홍보실 등 해양문화공간이 조성되어 동해바다와 설악산, 속초시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관광명소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찾아오시는 길

대중교통

- ▶ 속초시외(고속)버스터미널
→ 속초항 → 속초등대
(약 20분)



어청도등대

어청도등대에는 해질녘 주변의 해송과 어우러진 그림같은 풍경이 있어 등대를 찾는 관광객들이 감탄사를 연발할 만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 신설정등** 1912.3.1
소재지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길 240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구조 원형콘크리트조 12m(평균해면상 61m)
등질 섬백광 12초 1섬광(F W 12s)
광달거리 26해리(약 48km)
인터넷 <http://gunsan.mof.go.kr>(군산지방해양수산청)
연락처 063-466-4411



망망대해의 쉼터, 중국 산둥반도 답소리가 들리는 곳...

●○ 여청도는 군산항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72km, 중국 산둥반도와는 약 300km의 거리로 개 짙는 소리와 닭 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중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우리나라 영해기선 기점 중 하나이기도 하다.

여청도는 푸를 청(靑)자를 쓸 만큼 물이 맑으며, BC 202년경 중국의 한고조(漢高祖)가 초항우(楚項羽)를 몰리치고 천하를 통일하자 패왕 항우는 자결하고 재상 전횡이 군사 500명을 거느리고 망명길에 올라 돛단배를 타고 서해를 목적없이 떠다니던 중 이 섬을 발견하였다고 전하며, 이곳에 일본이 대륙진출을 위하여 1912년 4월 등대를 신설 점등하여 약 100년의 역사를 지니게 되었다.

여청도등대의 등탑은 조형미를 살리기 위하여 상부를 전통 한옥의 서까래 형상으로 구성하였으며, 홍색 등롱과 하얀 등탑 그리고 세월을 느낄수 있는 돌담이 어우러져 예술적으로도 손색이 없다.

여청도등대에는 해질녘 주변의 해송과 어우러진 그림같은 풍경이 있어 등대를 찾는 관광객들이 감탄사를 연발할 만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찾아오시는 길

- ▶ 군산시외버스터미널 →
- 군산항 여객터미널(30분 소요) →
- 여청도선착장(2시간30분) →
- 여청도등대(도보20분)



홍도등대

홍도등대는 목포에서 약116km, 대흑산도에서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목포항과 서해안의 남북항로를 이용하는 선박들의 뱃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신설점등 1931.2.1.
소재지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2길 5
구조 백사각형콘크리트조 10m(평균해면상 89m)
등질 섬백광 20초 3섬광(F)(3)W 20s
광달거리 24해리(약 45km)
인터넷 <http://mokpo.mof.go.kr>(목포지방해양수산청)
연락처 061-246-3888



홍도야~ 울지마라, 멋진 일출과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명품등대

●○ 홍도마을은 1480년경 김해김씨 김태선이 고기잡이 왔다가 풍랑을 만나 이곳으로 피신하여 살다보니 사람이 살만하고 풍경이 좋아 정착하였다고 한다. 홍도에는 향기가 10리까지 풍긴다는 대염풍란 등 274종의 희귀식물과 230여종의 동물류가 살고 있다. 1965년부터 섬 전체를 “천연기념물 제17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암괴석 틈새에 자생하고 있는 500여년 된 분재 소나무, 석화, 굴, 독립문 바위 등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홍도등대는 목포에서 약116km, 대흑산도에서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목포항과 서해안의 남북항로를 이용하는 선박들의 뱃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등대 불빛은 20초에 3번 반짝이며, 무려 45km 떨어진 곳까지의 불빛이 전달한다. 등탑은 불과 10여 미터 높이이나 위낙 높은 곳에 세워져서 멀리서도 한 눈에 들어온다. 홍도등대는 그 자체 명품(등대문화유산 제3호)이다. 보통의 원주형 등탑과 달리 사각형의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이곳 홍도등대에서 노을을 감상하는 것이 포인트. 절묘하게 어울 어진 주변의 작은 섬에 걸리는 저녁노을은 아름답다. 또 주변자연경관과 새벽녘의 안개와 어우러져 일출을 맞이할 때 경이로움까지 느껴진다. 그래서 홍도등대에서 맞는 일출과 석양은 홍도등대를 왜 명품등대라 하는지 다시 한 번 환기시킨다.



찾아오시는 길

대중교통

- ▶ 목포여객선터미널 → 홍도(2시간30분, 1일2회)
- 홍도등대(웅선30분)



옹도등대

옹도의 명칭은 그 모양이 옹기(甕器)를 옆으로 누어놓은 것 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하여 섬 곳곳에 옹도를 상징하는 옹기 조형물이 많다.



신설점등 1907.1.1
소재지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산29
구조 백8각 콘크리트형 14.7m(평균해면상 75m)
등질 섬백광 15초 1섬광(F W 15s)
광달거리 26해리(약 50km)
인터넷 <http://daesan.mof.go.kr>(대산지방해양수산청)
연락처 041-675-1317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그곳 옹도등대

●○ 옹도등대는 1907년 1월 인천·평택·대산항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세워진 유인등대이다. 등대하면 떠오르는 막연한 그리움과 외로움을 간직한 옹도는 2007년 10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소개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옹도의 명칭은 그 모양이 옹기(甕器)를 옆으로 누어놓은 것 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하여 섬 곳곳에 옹도를 상징하는 옹기 조형물이 많다.

안흥외항(신진도)에서 배를 타고 30분 정도(거리12km) 지나면 가의도를 지나 유인등대인 옹도가 나타나며 1시간가량 섬에 머무를 수 있다. 약 50,552㎡의 작은 섬인 이곳에는 등대를 지키는 등대원만이 살고 있다. 선착장을 따라 등대로 올라가는 산책로에는 동백나무 군락이 산등성이를 따라 밀집되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하며, 중간 중간 쉼터도 마련되어 잠시 머물러 포토존에서 사진과 추억도 담아가며 등탑에서 내려다보이는 서해의 해남기를 보고 싶노라면 자연의 아름다움에 숙연함마저 갖게 된다.

태안해안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옹도는 2013년에 민간에 최초 개방되면서 필수 관광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등대 16경에 등재 선정되었고 여가선용 및 체험학습공간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찾아오시는 길

대중교통

- ▶ 태안 - 안흥외항(1일 6회, 30분 소요) - 옹도(웅선 30분)
- ▶ 신진도 안흥유람선(40분)
- 옹도(입도 1시간)→가의도→관장수도→신진도 입항

자가용

- ▶ 서해안고속도로(서산 및 해미나들목)→태안
- 안흥외항→옹도(웅선 30분)



한국의 아름다운 등대16경

울기등대

등대가 대왕암공원 내에 위치하여, 등대로 가는 길의 가장자리에는 타래꽃, 수선화, 해당화, 해국 등 각종 야생화가 찾는 이를 반기며, 매년 4월이면 왕벚나무가 만개하여 터널과 같은 장관을 이룬다.



신설점등 1906.3.24.
소재지 울산광역시 동구 등대로 155
구조 백8각형콘크리트조 24m(평균해면상 53m)
등질 섬백광 10초 1섬광(FW 10s)
광달거리 26해리(약 50km)
인터넷 ulsan.mof.go.kr(울산지방해양수산청)
연락처 052-251-2125



울창한 소나무 숲과 어우러진 등대가 있는 곳...

●○ 태백산맥이 뿔어내려 마지막 동으로 그 끝머리가 깊숙이 방어진 반도에 꼬리를 감춘 곳. 기기묘묘한 바위들이 해안의 절경을 이루고 있어 "제2의 해금강"이라고 불리는 울산의 동쪽 끝에 울기등대가 건립된 것은 1906년 3월 높이 6m의 백8각형 등탑이 세워지면서 부터이다. 조선시대 말을 기르던 목장이었던 이곳에 인공적으로 조성한 해상림이 자라 하늘을 감싸 안아 등대불이 보이지 않게 되자, 1987년 12월 기존 위치에서 50m정도 옮겨 촛대모양의 아름다운 등탑(24m)을 새로이 건립하여 동해안을 향해하는 선박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등대가 대왕암공원 내에 위치하여, 등대로 가는 길의 가장자리에는 타래꽃, 수선화, 해당화, 해국 등 각종 야생화가 찾는 이를 반기며, 매년 4월이면 왕벚나무가 만개하여 터널과 같은 장관을 이룬다. 등대를 지나 계단을 내려서면 문무대왕비(妃)의 호국영령이 서려 볼그스름한 기운을 띤 대왕암이 청자빛 하늘과 코발트빛 바다를 그은 수평선 위로 살짝 드러나면서 절경을 자아낸다.



찾아오시는 길

대중교통

- ▶ 시외/고속버스터미널 → 아산로 → 방어진 → 울기등대 (약30분)



한국의 아름다운 등대16경

간절곶등대

간절곶등대는 국립천문대와 새천년준비위원회가 "2000년 1월 1일 오전 7시31분26초" 새천년의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소로 공포함에 따라 더욱 유명한 등대가 되었다.



신설점등 1920.3.26.
소재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1길 39-2
구조 백8각콘크리트조 17m(평균해면상 35m)
등질 섬백광 15초 1섬광(FW 15s)
광달거리 26해리(약 50km)
인터넷 ulsan.mof.go.kr(울산지방해양수산청)
연락처 052-239-6313



해맞이 명소로 유명한 간절곶 등대 ……

●○ 동북아 대륙에서 새천년을 가장 먼저 맞이한 곳, 간절곶등대!

해안을 따라 느린 경사의 언덕이 있고, 그 동으로 언덕에 그림같은 등대가 서 있다. 그 앞에는 남태평양과 동해안으로 향하는 뱃길이 환하게 열려 있고, 무거운 짐을 실은 거대한 화물선들은 울산항에 정박해 있다. 이곳 간절곶등대는 1920년 3월 처음 불을 밝힌 이래 80년을 하루같이 울산항과 동해를 드나드는 선박들의 항로를 비추었고, 새천년을 맞아 더 밝게, 더 멀리 비출 수 있도록 등탑(17m) 개량과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전망대, 홍보관 및 잔디광장 등의 해양문화공간을 조성·운영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친숙한 등대가되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간절곶등대는 국립천문대와 새천년준비위원회가 “2000년 1월 1일 오전 7시31분26초” 새천년의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소로 공포함에 따라 더욱 유명한 등대가 되었다.

이처럼 간절곶이 새해 첫 일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으로 알려지면서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고, 이들을 위해 등대 주변에는 장승들이 즐비하게 세워져 등대와 키재기를 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소망우체통’, ‘모녀상’과 ‘어부상’ 등의 석재 조각품, ‘기둥’ ‘돌과 하나의 논리’ 등의 철재 조각품이 곳곳에 세워져 색다른 해양문화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찾아오시는 길

대중교통

- ▶ 좌석버스
삼산→공업탑→간절곶(약50분)
- ▶ 시외버스(부산·해운대행)
공업탑→진해해수욕장→간절곶(약50분)



독도등대

해저 약 2000m에서 솟은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화산섬으로, 약 460만년 전부터 250만년 전 사이에 형성되었다.



- 신설점등 1954. 8. 10.
소재지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63
구조 백원형콘크리트조 15m(평균해면상 104m)
등질 섬백광 10초 1섬광(FW 10s)
광달거리 25해리(약 46km)
인터넷 <http://pohang.momaf.go.kr>(포항지방해양수산청)
연락처 054-791-1161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200리... 파수꾼 독도등대

●○ 바다 한복판에 두 기둥이 우뚝 서서 위풍당당하게 바다를 바라보는 웅장한 모습의 독도! 거기에 우리의 동쪽 바다를 비추는 독도등대가 서있다. 독도는 망망대해 위에 깎아지른 바위 봉우리로 규모는 작지만 그 풍광은 웅장하기 그지없다. 코끼리를 닮은 독립문바위와 주변에 크고 작은 암봉, 가재바위와 탕건봉 등은 바다 한가운데 펼쳐진 기암 전시장처럼 보인다. 바다와 하늘과 조화를 이룬 독도의 자연 경관은 그야말로 한폭의 그림을 방불케 한다. 이 섬은 해저 약 2000m에서 솟은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화산섬으로, 약 460만년 전부터 250만년 전 사이에 형성되었다.

독도등대는 최 동단에 위치하여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변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 또는 조업어선의 안전을 위해 1954년 8월에 최초로 설치되었다. 1998년 12월 광력을 증강하고 등대원이 상주하는 유인등대화하였다. 현재의 독도등대는 백색원형콘크리트 구조로(높이15m) 백색 불빛이 10초에 한번 깜박이며, 46km의 먼곳까지 불빛을 전한다.



찾아오시는 길

여객선

- ▶ 포항여객선터미널→울릉도 (3시간, 1일 1회왕복)
- ▶ 묵호여객선터미널→울릉도 (2시간30분, 1일 1회왕복)
- ▶ 강릉여객선터미널→울릉도 (2시간30분, 1일 1회왕복)
- ▶ 울릉도(저동,사동)→독도 (1시간40분, 3~11월운행)



한국의 아름다운 등대16경

호미곶등대

해저 약 2000m에서 솟은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화산섬으로, 약 460만년 전부터 250만년 전 사이에 형성되었다.



신설점등 1908.12. 20.
소재지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호미곶길 99번지
구조 백8각 연와조 26.4m(평균해면상 31m)
등질 섬백광 12초 1섬광(FW 12s)
광달거리 22해리(약 35km)
인터넷 pohang.momaf.go.kr(포항지방해양수산청)
연락처 054-284-9814



한반도 최동단 호랑이꼬리, 최고의 명당 호미곶!

●○ 호미곶등대는 한반도 최동단에 위치해 일출로 전국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호미곶(虎尾串)'에 위치해 있다. 16세기 조선 명종때 풍수지리학자인 남사고는 한반도가 호랑이 모습이라며 백두산은 호랑이 꼬, 호미곶은 호랑이 꼬리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천하 명당으로 꼽았다.

광무5년(1901) 9월 9일 일본수산업전문대학 실습선(快應丸)이 대보 앞바다를 항해하다가 암초에 좌초되어 승선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1908년 12월 호미곶등대가 건립됐다. 이 등대는 8각 연와조로 철근없이 벽돌로만 지어졌으며 내부는 6층으로, 등탑높이는 26.4m이다. 각층 천정에는 대한제국 황실 문양인 '오얏꽃(李花文)'이 새겨져 있고 출입문과 창문은 고대 그리스 신전 건축의 박공양식으로 장식돼 있다. 또 상부는 동형 지붕 형태에 8각형 평면이 받치고 있으며 하부로 갈수록 점차 넓어진다. 1982년 경상북도기념물 제39호로 지정되었다.



찾아오시는 길

대중교통(200번 버스)

- ▶ 포항시외버스터미널→구룡포(약50분)
- ▶ 구룡포→대보행 순환버스 이용(약30분)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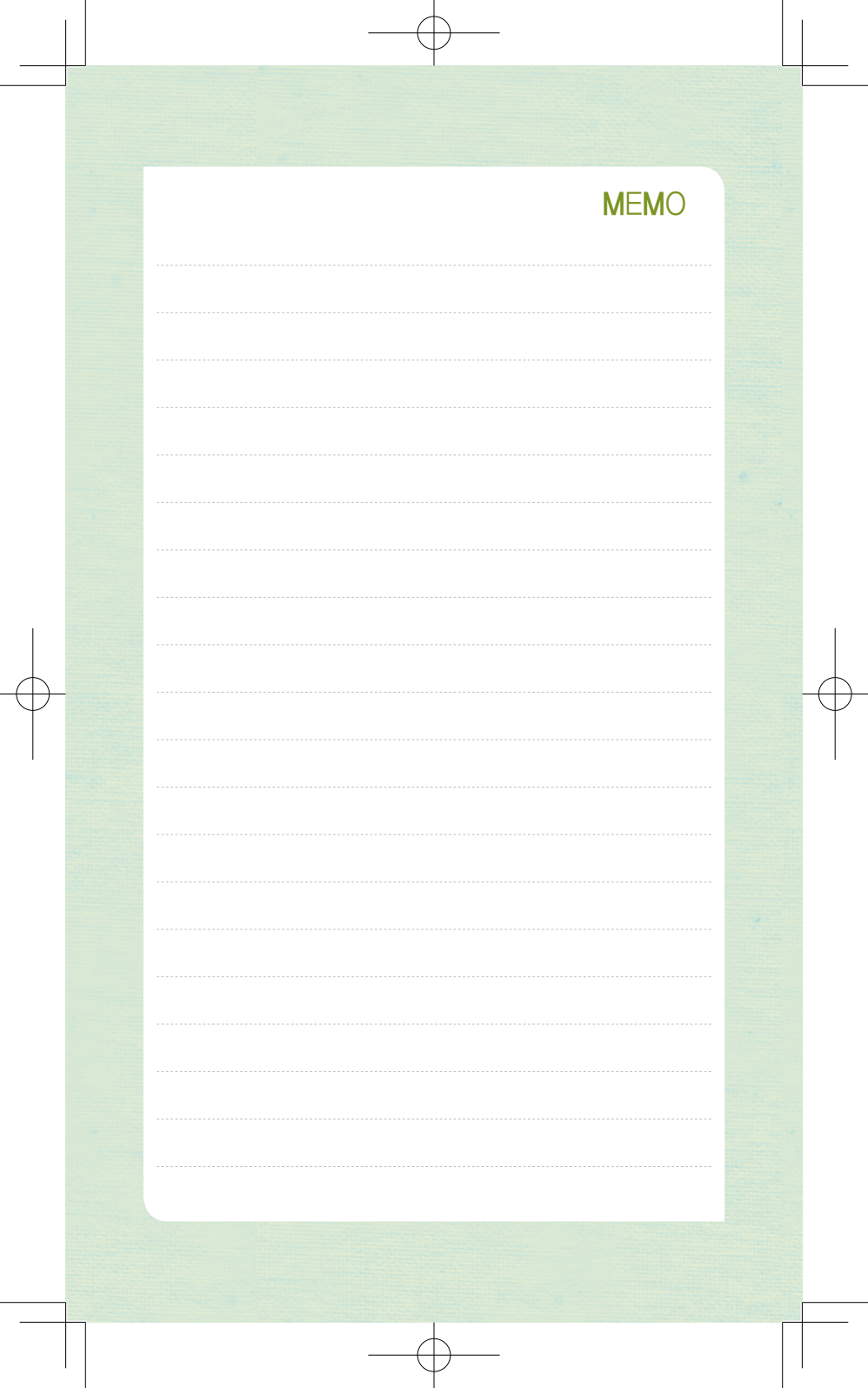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contained within a white rounded rectangle on a green textured background.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arranged in a vertical column within a white rounded rectangle.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contained within a white rounded rectangle on a green textured background.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contained within a white rounded rectangle on a green textured background.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contained within a white rounded rectangle on a green textured background.